



문체부 국제관광도시 관광거점도시 여수시 탈락

부산, 목포, 전주, 안동, 강릉 선정 - 선정 도시 5년간 국비 500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 500억 원이 지원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 가운데 국제관광도시로 부산 비롯해 지역관광거점도시로 강릉(강원), 안동(경북), 전주(전북), 목포시(전남) 등 5곳을 선정했다.

문체부 관광거점도시란 고유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지니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를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치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거점도

시 당 향후 5년간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관광분야 최대 규모 사업이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에서 최종 탈락했고 국제관광도시 대상지로는 인천과 경합을 벌인 부산이 선정됐으며, 지역관광거점도시에는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4곳이 선정됐다.

앞서 여수시는 문체부가 2년마다 진행되는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며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다. 관광자원과 인

프라, 지역관광 효과와 지역 홍보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여수밤바다 브랜드, 낭만포차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최근 5년 연속 1300만 명 관광객이 찾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 했다.

여수시는 남해안 광역 관광의 허브 역할과 글로벌 해양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면서 21일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최종심사 발표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선정 결과>

선정 도시	비	전
국제관광도시	부산광역시	한국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
	강원 강릉시	Go East! Beautiful City, 강릉
지역관광거점도시	전북 전주시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거점도시, 전주
	전남 목포시	대한민국 서남해안권 관광거점 목포 실현
	경북 안동시	글로벌 No.1 유교중심의 전통문화 관광도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수의 탈락을 지역안배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 국제관광도시에 43억 원, 지역관광거점

도시에 각 21억5000만 원(총 86억 원), 홍보 및 컨설팅에 30억 원 등 국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5년간 지원한다.

최현란기자



'여수~고흥간 다리' 낮과 밤

지난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설명절 임시개통했다



▲동봉대교 한해광 기자



▲회안대교 한해광 기자



▲동봉대교 야경 박근세 작가



▲낭도대교 야경 박근세 작가

소라봉두 주민...누구를 위한 국비인가!

권시장 향해 가축분뇨처리장 허가취소하라 항의 농성

정현주시의원 주재현시의원 "월급 값을 하라!" 권 시장 똥 싸우고 천년만년 살아라!



여수시가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소라봉두 지역 허가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2020년도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위해 1월21일 오후 3시 권오봉 여수시장이 소라면사무소에서 소라면 지역민들을 만났다. 소라면사무

소 입구에는 1시30분부터 피켓과 현수막을 붙이고 권시장을 기다리는 60여명의 주민들이 있다.

'똥공장 결사반대' '여수시는 각

성해라' '아프구나 소라면민은' '소라면에 공원묘지면 됐지, 똥그리 싸다가 갖다 놓냐?' '권 시장 똥공장 세우고 천년만년 살아라'

'원오봉 시장, 소라면민이 봉으로 보이냐' 등 소라봉두지역에 설립허가가 난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 허가취소를 해달라는 항의농성이 4시20분까지 이어졌다.

소라주민들은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악취발생을 우려하며 반대와 함께 공무원이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봉두지역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설립과 인허가에 앞장서는 것이냐며 강한 반발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절대반대 바람과는 상관없이 시의 허가가 떨어졌고 이에 대해 허가취소 농성이 벌어졌다. 소라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주민, 사업주, 공무원과의 결탁이 의문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현주시의원과 주재현시의원은 소라주민들의 아픔을 알고나 있냐. 월급 값을 하라"며 강한 항의와 함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권시장은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 불편을 끼치는 것은 안 된다.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라고 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전라남도에 분뇨장 없는 곳은 여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악취로 인해 고통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악취 발생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여수시가 꼭 건립해야할 사업이다"라고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최현란 기자·사진 김영주 기자

해리스가든 출장뷔페

061.692.5577

사랑해 빨간밥차, 소불고기로 따뜻한 겨울나기

함께하면 더 즐거운 세상... (주)금호폴리켄과 (유)금오관광이 함께하는 식사대접 봉사

(주)금호폴리켄이 주관하는 사회 공헌활동 사랑해 빨간밥차가 27일 성산공원에서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주)금호폴리켄이 주관하여 임직원과 금호폴리켄 출퇴근 협력업체 직원들이 함께 180명의 쇠외된 지역 어르신들께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주)금호폴리켄은 매일 마지막 금

요일 점심을 성산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는 (유)금오관광 직원들이 무료배식 봉사를 함께 했다.

이날의 식사는 소불고기와 밥, 톳콩나물 무침, 김치, 요쿠르트와 떡, 바나나가 나와서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책임졌다.

최현란 기자·사진 김영주 기자



대영중공업, 소리면 저소득층에 따뜻한 온정

설 명절 맞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 75포 후원

(주)대영중공업(대표 황태식)은 21일 소리면에 백미 75포(21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된 백미는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면사무소를 통해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7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태식 대표는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상 소리면장은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민관이 협력하여 더불어살아가는 소리면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의원은 "황태식 대표의 나눔 실천이 소리면 어르신들 마음에 포근한 위로가 될 것이다. 황태식 대표는 지난해 여수시 사회복지실천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평소 소외된 이웃을



향해 많은 사랑을 나누신다"라고 황태식 대표의 선행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주)대영중공업은 독거노인, 새터민 지원, 소년소녀가장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연말 연시 불우이웃 돕기, 정월 참여 등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실천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최현란기자

'전남 연안 가치를 올바르게' 제3차 여수간담회 열려

정태균전문위원, "가고싶은 섬" 여수지역 섬 발전 위해 데일리섬 방안 제시



전남도 이광일 도의원과 여수일보, 서남해안경선센터가 공동주최한 '제3차 전남연안 가치를 올바르게' 간담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여수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이광일도의원,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장 주중섭의원, 환경 및 해양관련 단체 등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여수연안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토론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 연안의 중요성과 가치를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여수연안의 특색을 반영한 보전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광일 도의원은 "이제 바다가 아니면 단박질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여수는 바다와 섬을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가꿀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일 도의원은 현재 전남도의회에서 해양생태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섭 여수시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수연안의 가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섬 등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여수해양환경과 바다쓰레기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이후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 및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정태균 전문위원은 '전남의 섬 정책과 이슈'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섬 "가고싶은 섬" 가꾸기란 주제로 발표를 하여 여수지역 섬 발전을 위해 데일리섬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여수시 남면

안도 동고지 김성수 총장은 '광역별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필요성'을, 서남해안경선센터 한해광 센터장은 '여수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구축 제안'을 각각 발표했다.

정태균 전문위원은 발표에서 "전남도 해양 관련 정책에서 여수가 상당히 소외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여수가 섬 박람회 개최를 성공하려면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수집 등을 적극 나서야하고, 섬관광의 키워드 중 하나인 해양레포츠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데 행정에서만 나서는 것보다 정치인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이 더 바람직하다"고 직언했다.

한해광 센터장은 "전남은 우리나라 바다의 50%, 섬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곳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있다. 오늘 간담회가 전남연안 가치를 올바르게... 여수간담회는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여수지역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섬지역의 바다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 한다"고 했다.

김성수 총장은 "연안환경의 변화는 한 지역, 하나만의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양쓰레기로부터 안전한가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응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참석자 모두는 여수세계 2026여수국제박람회 유치 성공은 여수만 특색을 담은 데일리 섬을 만들어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한해광 기자

수업혁신을 위한 한 걸음, 외국어 교육의 길을 열다!

전남국제교육원, 수업역량강화 직무연수 시작

전라남도국제교육원(원장 고미영)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교사 42명을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2020. 외국어(일본어, 중국어)교사 수업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중등 일본어 교사와 중등 중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2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 이번 연수는 외국어 교사의 교과교육 역량 제고 및 평가 방법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다문화시대 세계시민 교사되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를 위한 다양한 제2외국어 교육활동', '제2외국어 과업중심평가 및 평가 계획 실습', '제2외국어 프로젝트 수업 방안 연구',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 사례', '구글 및 크롬을 활용한 교실 수업 개선 등의 과목으로 진행했다.

이번 외국어(일본어·중국)교사 수업역량강화 직무연수에 참가



한 한 연수생은 "이번 수업역량강화 직무연수를 통해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 및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방법을 알게 되었고 특히 동료교사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사례를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연수 소감을 밝혔다.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어(일본어·중국)교사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 역량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 외국어(일본어·중국)교사 간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화 (교육연구사)

여기에때? - 동의명가칼국수

칼국수 집에 왜 떡국?! ~ 했지만 요즘은 이때만 되면 갈비탕집도 수제비집도 분식집도 계절음식으로 떡국을 내놓고 있다보니 계절음식으로 나왔나 보다 생각난다.

개인브랜드가 아닌 전국 체인

인걸 알겠더라고요~ 세련된 로고에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기 좋았고 사진과 함께한 메뉴설명들이 눈에 속속, 주문이 쉬웠답니다. 나는 사골떡국, 친구는 김치사골칼국수와 만두!

사골떡국은 정말 우려낼데로

우려낸 진~~한 사골이 정말 일품!! 그 위에 김가루까지 뿌리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맛이라 완전 감동!!! 한참동안 맘도 않고 클리어!! 먹고 나니 똥가 아쉽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사골국물을 따로 포장판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싸짜!!

우유통같은 예쁜용기에 2개 담아서 10,000원! 이 정도면 입癖은

4인 우리 가족은 충분히 먹겠더라고요~ ~

오늘 간 동의칼국수!! 일단 주인장님의 친절도가 너무 좋았어요~

신기동 청음악기 맞은편이라 찾기가 쉬웠어요~ 시내권 주차가 다 그러하듯 주차는 근처에 하고 와야겠답니다.

김경숙 (해리슨가든 대표)



범용테크

Plant Equipment Sales & Service
Solvent & Chemical Sales

가스검지기, 수신부

스팀트랩, 응축수 회수

기계가공품, Mesh 등

(주)부영기계

제품문의 061-644-2330 / Fax 061-644-2320

본사 / 대표이사: 김범수
전남 여수시 여수신단로 284
Tel. 061-691-8515 / Fax. 061-644-2320

대길CP

ABS 및 EP Compound 가공
롯데첨단소재 공장내 / 207명

대길MF

SSBR 및 EPDM 포장, 출하
롯데베르칼레스 공장내 / 37명

Gas Detector

Steam Trap

Mesh & Flexible Hose & Strainer

GS건설 도성·대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정보 공개하라!

영취산 고압 송전탑 반대 “다시 투쟁하겠다”

‘한전은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
목숨 담보 단식 농성 강제 중단
서원석의장, 고압송전탑 건설공사 반대
일부구간 지중화에 줄 것 촉구

농경지침수, 주민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란 무엇인가...보상근거 제시하라
대포지역 저류지 관리 대상자인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의 문서를 공개하라
수산업법 임대차금지법, 어업 목적 아닌 임대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했던 해수부 승인 내용 공개

대포지역 발전협의회(이하 대포 발전협)가 GS건설이 도성, 대포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대포마을 주민들을 제의시킨 가운데 대포 마을에 물에 잠기는 등 악영향의 피해에 대하여 5가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개요청 사항

1.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상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약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
2. 여수시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 3항, 가.1에서 대포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실시했는지를 사전제해평가 실시 결과를 공개 요청한다.
3. 여수시에서 보내온 민원처리 결과 3항 가.2에서 저류지에 보 설치로 인한 농경지침수 및 주민피해 발생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의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보상근거를 구체적으로 (보험증권 및 현금..) 제시하길 요청한다.
4. 대포지역 저류지 관리 대상자인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의 문서를 공개 요청한다.
5. 해양수산부 수산업법외 임대차 금지법 (제 10조 면허의 결정사유 : 어업 목적이 아닌 법인이거나 단체에게 임대할 수 없다)이 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했던 해수부 승인 내용을 공개 요청 한다.
6. GS건설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대포발전협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포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원한다.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대포 마을에 물에 잠기는 등 악영향의 피해를 대하여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방안 했는지 여수시와 GS건설에 묻는다”고 했다.

또한 “대포지역 물이 수상태양광 설치 인근 300미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성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대포지역도 지원방안 및 사회환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포지역 주민은 “GS건설은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포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포 물이 수상태양광 설치 구역에 들어가 있다. 그 등에서 농사짓고 맨손어업을 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대포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대포지역 주민들과의 설명회가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포지역발전협의회 김연환 집행위원장은 “시장실에 건의문을 제시하고 약 5시간 후 GS건설 수상태양광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다. 시장님께 보고하라고 보낸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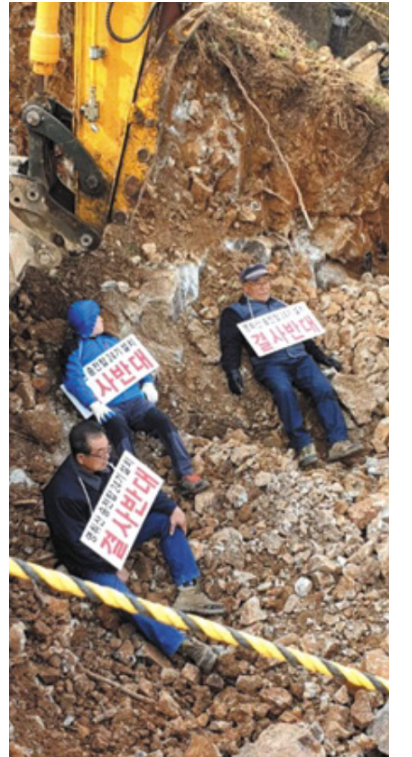
의문을 GS건설에 보고한 것이냐”고 담당공무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상태양광설치는 신중을 가하여 어떤 정책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GS건설과 여수시는 사후평가 등을 철저히 하여 수상태양광설치 후에도 대포주민들에게 그 어떤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육상태양광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강화에 나선후 ‘수상태양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판매 증폭속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과 생태환경파괴 등 지역 주민들이 안정성에 대한 염려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GS건설은 여수 시,주민과 협의해 복지사업 250여을 도성마을에 지원하고 스마트팜 시설과 세탁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최항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영취산송전철탄공사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송전탑대책위)가 영취산 고압송전철탄공사에 반대하며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굴착하고 있는 깊이 10미터 구덩이에 들어가 진행하던 단식농성이 일시 중단되었다.

지난 16일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던 최현범위원장님이 7일 만에 병원으로 강제이송되면서 농성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여수시의회 서원석의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주민 요구와 여수시의회의 결의대로 송전탑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 적량~중용 구간만이라도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영취산 고압송전탑 건설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당시 한전은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제 앞서 여수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형공사현장 21개소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사업시행 관계자에게 동절기 중점 점검 사항을 설명하고 시공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하도급업체를 참여시켜 줄 것과 여수지역 생선품 우선사용, 현장 근무 인력에 대한 우리시 점인에 대하여 적극 당부하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재난 없는 안전한 여수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원기자

여수시, 시민 안전 위해 대형공사장 ‘집중 점검’ 2월 말까지,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형공사장 21개소 집중점검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이달 28일부터 2월 말까지 동절기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시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형공사장으로 죽림현 대지역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8개소와 디 아일랜드 숙박시설 등 13개소를 합쳐 총 21개소이다.

시는 허가민원과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팀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에 취약한 절개지 등에 대한 지반침하, 혹은 콘크리트 타설 적정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구조물에 대한 보강 및 보호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부분은 시공 벌점 부여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목소리 (호루라기)

이것은 대화 단절봉인가?

여수시장과의 대화가 거부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시청 앞 이곳에서 대화를 위한 합의를 했었다. 여수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봉을 세워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듯하다. 대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단절봉 앞에서, 여수시민 김00

*호루라기-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신원 비밀을 보장합니다. 전화)061-654-8885 이메일)ysb1333@hanmail.net

여수시민, 나는 시민기자다!

제6기 여수일보 저널리스트 아카데미

교육기간 '20년 02월 27일(목)-05월 7일(목) 총 10 회(매주 목요일)

교육대상 여수시민 누구나

교육장소 여수일보 교육실

교육시간 오후 7시-8시 30분

교육문의 061)654-8885

강의	강의 내용
1강	개강 O/T
2강	체형과 필권, 적용의 글쓰기
3강	현장 취재 이야기와 리드잡기
4강	해양과 환경
5강	기사쓰기 1
6강	기사쓰기 2
7강	문학예술
8강	인터넷 기사올리기 실습1
9강	인터넷 기사올리기 실습2
10강	수료식

여수일보
www.ysbtv.kr

[농사는 자연이다] <11>

토양에 왜 퇴비를 넣어주어야 하나?



하병연

이학박사/시민

국립경상대학교농생명과학대학 학술연구교수

퇴비는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키고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 하지만 퇴비의 가장 큰 역할은 화학비료처럼 양분 공급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토양 유기물 증진에 있다.

토양 유기물은 토양에서 미생물의 밥과 같은 역할을 하고 딱딱한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어 작물 뿌리를 잘 자라게 한다. 또한 유기물이 발효하면서 나오는 부식산과 같은 점액질은 토양 입자를 뭉치게 하여 물의 배수성과 통기성을 좋게 해준다. 이

것 이외에도 과일의 당도를 증가시키고 병해충 피해를 덜어뜨리고 토양 내 불용해성 양분들을 용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토양 수분과 양분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역할을 한다.

농업에 있어서 토양 유기물의 역할은 무궁무진하여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자가 퇴비를 직접 제조하여 논밭에 뿌렸다. 일 년 농사 준비에 퇴비 제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풀을 베어다 소똥과 인분을 혼합하여 몇 번의 뒤집기 과정을 거쳐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왜 힘들게 토양에 퇴비를 넣어 줘야 하나?' 이런 질문을 농가들에게 하면 퇴비를 안 넣으면 농사가 잘되지 않아서 퇴비를 넣는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퇴비를 토양에 넣지 않으면 밤과 반찬이 없는 텅 빈 밥상을 토양 생명체들에게 주는 것과 같다.

토양 속에도 엄연한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밤과 반찬이 있는 먹이가 필요한데 퇴비를

주지 않으면 토양 생태계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 토양 미생물을 포함한 토양 생명체들이 배가 고프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토양 생태계가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통해 유기물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어야 한다.

퇴비는 토양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효되면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양분 이온들을 방출한다. 작물은 이런 무기양분 이온들을 뿌리를 통해 흡수하여 배를 채우는 데 퇴비에서는 화학비료처럼 양분 공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작물 전 생육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여 '지효성비료'라고도 한다.

작물의 전 생육 기간 동안 부족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작물이 배를 굶지 않는다. 그래서 퇴비는 토양뿐만 아니라 토양 생명체와 작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비 살포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나와 당신, 우리는 자연 순환의 끈을 이어가는 작은 힘'

(사)ECO-PLUS21 청소년환경지킴이,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친환경 생태계 탐방'



제주 선진 클린정책, 제주시청 방문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제주도, 한 해 평균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이곳 제주 (사)ECO-PLUS21(김영주 회장) 청소년환경지킴이 11명이 (2020년 1월 1일~1월2일) 생태계 탐방에 나섰다.

(사)ECO-PLUS21은 자연이 인간에 의해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와 당신, 우리는 자연순환의 끈을 이어가는 작은 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여수국가산단 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환경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니터링 봉사단체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 친환경 생태계 탐방'은 여수지역 청소년 환경지킴이들에게 제주의 오염되지 않은 천연기념물과 세계자연유산 등지를 직접 탐방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다양성을 경험해보는 취지로 진행됐다.

제주로 출발하기 전날 오후 10시, 김영주 회장에 환경모니터링 교육을 받았다. 1시간 동안의 이론교육을 받고 여수국가산단 지역에서 직접 미세먼지 측정과 직접관능법 조사로 악취정도를 구분하는 모니터링을 했다.

김영주 회장은 이 교육의 목적을 "우리지역의 특수성인 여수국가산단의 현 환경을 바로 알고 스스로 경계의 자세 갖추기 위함이다. 악취와 유해물질이 있는 여수국가산단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지켜볼 때 국가산단도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여수시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의뢰가 바다 한 복판에 세워진 해안 산책길에는 유채꽃과 소국이 피어있다. 해안절벽과 소나무 서귀포 해안이 경관이 빼어나다. 하지만 관광지 어디나 그러하듯



▲여수국가산단내 모니터링



▲제주 신항 풍력발전 탐방



▲거문오름 탐방



▲곳지알 탐방



▲제주 올레길 7코스 외돌개



▲제주클린하우스 및 제주시청 탐방

이곳 올레길도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져 있다.

청소년지킴이들은 올레길코스 중 약 3km 구간을 환경정화와 함께 쓰레기 분포도 조사에 들어갔다.

제일 많은 것으로는 담배꽂이였다.

제주클린하우스는 디자인이 특이함에 등록되었다. 쓰레기 배출시스템 아이디어가 높게 평가 되어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온다.

현재 제주클린하우스는 총 1780 곳이다.

김영주 회장은 청소년지킴이들에게 "제주의 청정정책과 공존에 걸맞는 선진국형 관리시스템과 천혜의 자연을 탐방하고 왔다. 여수도 곧 선진국형 쓰레기 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첨단시스템이 동원된 그 어떤 훌륭한 정책이라도 효과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환란기자, 사진 김영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기획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추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 기획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기획단속'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

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배출사업장 관리에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주요 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등을 대



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대기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동안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집중 대응체계"라며, "제도의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규원기자

한해광의 <해양바라기>



한해광 (서남해센터장)

2022UN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 지구적인 관심사인 해양쓰레기 제로 운동 전개를 제안한다. 바다쓰레기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여수는 폭우나 태풍 발생 때마다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 중 하나다. 특히 지역에 따라 동계 하계에 더 많은 해양쓰레기가 밀려온다.

바다쓰레기는 해류와 바람 그리고 조류에 의한 표착 그리고 수거 및 처리까지 완벽하게 진행

COP28유치 전략, 해양쓰레기 제로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 바다쓰레기를 없애야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해양쓰레기 ZERO운동이 성공한다. 바다쓰레기를 현장에서 태우는 것은 제로화운동이 아니다. 특히 지금 겨울바다 현장에 밀려와 포화한 해양쓰레기, 지난 해 이룬 해양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남해환경센터는 지난해 12월 여수지역 안도에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류에 의한 표착해양쓰레기가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만 수톤이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북서계절풍이 불고 있는 이시기에 이 정도 양이라면 여름철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밀려올 것이라는 예상이다라는 것이 센터 측 의견이다.

여름철 여수해역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중 수거는 2016년 1,97t, 2017년 1,490t, 2018년 1,649t 이었다. 예산에 따른 수거 및 처리시스템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금

까지 모아둔 해양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수지역으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판단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립12월30일 여수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남연안가치 올바르게(여수) 간담회에서 섬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해 논의과정에서 사계절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이 되려면 섬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쓰레기 대응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가 끝난 지도 벌써 8년 인데 변한 것이 없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은 구호에 그리던 것일까? 이제라도 여수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양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당차게 전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수일보사 호루라기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보해주세요.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일착 부패까지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을 시민 스스로 호루라기를 불어 환하게 밝히는 동행이 됩시다. 제보자는 신원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제보방법

전화 061-654-8885, 061-810-0011

이메일 ysibtv@hanmail.net



'겨울 해조류'에 담긴 놀라운 건강 효능

보건칼럼



김 명 숙
전, 돌산병사보건소장

대한민국이 독감과 미세먼지로 연일 앓고 있다. 이럴 때는 면역력을 높이고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해조류를 먹는 게 좋다. 미세먼지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유발하는데, 갈조류 추출물은 악화하는 기도염과 알레르기 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적 잠재력이 있다. 해조류(marine algae)는 해수에 서식하는 광합성 식물로서 미세조류와 거대조류가 있는데, 특히 거대조류는 오랫동안 인간에게 유용한 식용, 사료, 비료, 의약품, 공업

용 원료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수산자원의 먹이, 산단 번식장으로도 활용되어 오고 있다. 해조류 해조 다당체는 중금속이나 유해 유기물의 흡착 배출 능력이 우수한 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증 및 면역 조절 작용도 뛰어나며 피부를 통해 유해 성분이 생체 내로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 산화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 단백질이 많고 타우린 성분도 풍부한 식품이며 타우린 성분은 간 피로 회복, 콜레스테롤 수치에 효과적이며, 비타민A가 많아서 눈에도 좋! 파래 단백질, 섬유질, 요오드, 칼륨 성분들이 많고 특히 칼슘이 많은

면역력 높이고 유해물질 배출시키는데 도움 주는 해조류 먹는 게 좋다

데, 해조류는 이에 대한 우수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꽃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전혀 없는 다이어트 바다식품 다시마 쇠고기, 우유에 비해 미네랄, 섬유소,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양질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미네랄, 요오드, 칼슘, 알긴산, 리비닌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현대인의 건강에 유익한 자연식품이다. -미역 식이섬유, 아미노산, 요오드, 엽록소가 많고 이 성분은 항암 작

식품이다. 파래에 들어 있는 베타틴A는 폐의 점막을 보호한다. 그리고 파래 속 알긴산나트륨은 방사선 독성물질 스트론튬 흡수를 차단하고 중금속을 배출시킨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따르면 파래는 과산화지질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저해한다. 이는 우수한 항암 능력으로 이어진다. 파래는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가진 폴리페놀 성분이 897mg/g로 미역, 다시마, 톳, 김 중 가장 많은 양을 가진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칼럼



김 중 열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결국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금을 스스로 갚아 나갈 수 없는 경우 법을 통해 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할 때 최대 5년간 성실하게 최저생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이후 남은

원금과 이자잔액을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며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재산을 가질 수는 없다.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63,339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까지의 누계건수인 60,386건에 비해 약 5% 가량 늘어났다. 개인파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18년 8월까지 29,009건이던 누계 건수는 2019년 8월 기준 30,853건으로 개인회생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욱 신용관리를 잘해야 한다. 현대사회를 일컬어 '신용사회'라고 한다. 신용이란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신용이 좋으면 담보 없이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신용이 좋지 않으면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음을 나타낸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7등급 이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만큼 신용등급이 중요하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연체정보이다. 금액이 미비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다. 요즘엔 인터넷이나 전화 한통으로 대부분 채무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도 마찬가지로이다. 결국 신용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길러야 하며,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꾸준한 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문



한 영 석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영 대표)

'동명네 농사법' 시장 선점(先占)하는 길이 된다

13ha, 영양군 등에서 미질은 좋지 만 도복이 문제되는 신동진 품종에 이양후 200평당 "그라제" 3포, 생육중, 후기 연면살포 "그라제 액제" 3회를 처리했다. 그 결과 무안군 청계면 태봉마을 배석산(62세)씨, 운남면 연리기중도(68세)씨, 동탄면 사창리 오철웅(51세)씨 등은 잦은 태풍에도 비가 넘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가바 성분을 한국가능식품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밥맛은 최상이라고 한다.

이 매뉴얼로 재배한 결과 도복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올해의 불량한 환경에서도 수량은 예년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확되었다. 그 중 1차 가바 성분 검사에서 9.53mg/100g 성적을 가져 쌀 판매를 앞둔 현재 전국 식자재 체인점, 백화점, 햇밤 제조사 등 5개사로 부터 공급 타진 및 내년 계약재배에 대한 상담이 진행중이다. 올해 고추 농사에서 무안군 무안을 성남리 큰골 임동운(68세)씨는 500평의 고추 재배에서 올해의 불순한 기후에서도 탄저병, 칼라병 등의 발생이 거의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했다. "정월 세척 견고추" 스티커를 포장에 부착 생산지와 생산자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매운맛, 감칠맛, 햇갈 등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 작기를 마감하였다. 내년에도 주문을 다시 하겠다는 고객의 반응도 뜨겁다.

고구마의 경우 현경면 동산리 박정화(62세)씨는 8년 전부터 이

매뉴얼을 활용 재배한 결과 올해는 소비자 사이에 그 맛이 유별한 명품 고구마로 인정되어 동일 등급에서 배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음에도 주문량의 절반 정도 밖에 공급하지 못한 정도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구축되었다. 무안군 무안을 고절9리 최운홍(50세)씨의 경우 작년에 배추, 시금치 등에서 배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나 공급이 부족하고 유통 인이 계약재배를 선 제안했다고 하며 김밥집에서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고흡군 두원면 학곡리 두곡 박영균(73세)씨의 경우 유자 농원에 작년 12월 200평당 "그라제" 2포+더블그린 1포를 갈사 비료로 표층 시비와 올 생육기에 그라제액제 5회를 연면 살포한 결과 꽃의 생김새와 착과 수, 크기, 맛, 유자향 등이 타 농가와 차이를 가져와 200주 당 3,300백만원 포전매매 되었는 데 농업인은 2,000만원선에 판매되어 유통인의 관심과 이웃 유자 농업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의 고급화로 상품성 향상과 합당한 수량성 증가로 이웃 농업인과 차별화 된 이 농사 매뉴얼이 시행 농업인 사이에는 진한 감동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양의 환경 개선의 결과 대부분의 시행 농업인들은 모든 농작물에서 명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시장에서 선점 가능성이 높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품성의 고급화와 합당한 수량을 위하여 60년 이상의 관행

농사 방법에서 "그라제 등 몇 가지의 검증된 농용 자재를 토양에 투입하여 토양 환경을 개선한 결과 대부분의 작물에서 명품 농산물 생산물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올 가을은 태풍이 3회 이상 지나고 비가 자주와 양파 묘기르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도 기계, 트레이, 일반 땅 육묘에서 양파 매뉴얼에 의거하여 "그라제" 등 자체의 주기적인 처리로 좋은 결과를 가져와 현재 정식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육묘의 표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흡군 두원면 관덕리 김병태(68세)씨는 수량 위주의 관행 농사 방법에서 상품성이 담보되는 동명네 농사법을 접목하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명품 농산물을 생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소비시장에서 농산물 판매의 선점만이 생산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이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농산물이 소비층에는 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으로 명품 농산물 생산만이 양쪽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일선 현장의 반응이다. "그라제" 등 검증된 몇 가지의 농용자재를 투입한 동명네 농사법은 토양의 생물성-화학성-물리성의 선순환으로 토양 환경을 개선 시키는 것이 급선무면서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이다.

철저한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경제적인 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공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주기업

대표 김성은

건설자재임대

비계설치공사

Tel. 691-7890, 682-7890
H-P. 010-3644-5859 Fax. 691-7896
여수시 조산로 233-18(덕양리 436-22)(소라면)



책임시공



빙탄소년, 장필순, 김시월, 세이수미와 함께 2019 올해의 음악인 후보 및 재즈 크로스오버 음반상 수상

신병은의 문화예술칼럼 신병은(시인)

여수가 낳은 재즈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선지

Art & Artist in Yeosu

여수 출신의 재즈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이선지가 2019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빙탄소년단, 장필순, 김시월, 세이수미 등과 함께 올해의 음악인 부문과 최우수 재즈음반 부문의 후보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반 'song of April'로 재즈 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했다.

이선지는 지난 2016년에는 올해의 재즈 뮤지션으로 선정되어 한국최고의 재즈피아니스트에 올랐으며, 2015년에는 자신의 4번째 앨범 '국경의 밤'으로 2015년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앨범을 수상하여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대중음악상은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K팝 스타들, 그리고 인디 뮤지션들까지 함께하는 시상식이다. K팝 아이돌 위주의 시상식 일색에서 '대안의 시상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출범한 한국대중음악상은 매년 초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비추고 돌아보는 역할을 했다. 흥행 보다 음악적 성취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래미'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한국대중음악상은 록, 포크, 알앤비 & 소울, 재즈 &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하위 장르를 분류해 시상하는 시상식으로 대중음악전문 기자, 평론가, 음악전문가로 선정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월호의 아픔을 음악적으로 승화한 앨범 "song of April"로 재즈 음악인으로서의 이례적으로 올해의 음악인 후보에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Song Of April>이라는 앨범에서 이선지는 2014년 4월 16일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그리고 바다로 떠난 이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다. 가사 한 줄 없이도, 선율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원래 불문학을 전공했던 피아니스트, 작곡가 이선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재즈의 진취적 성장을 대변해 온 리더 중 한 사람이다. 서울예대를 졸업한 후 가요와 뮤지컬, 영화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이선지'는 재즈를 본격적으로 연주하겠다는 열정과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갈망으로 유학을 선택한다.

그 후 보스턴과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길 골드스타인, 돈 프리드먼, 랄프 알레시 등을 사사했고, 빌리 드러몬드, 조지 가즌, 조 로바노 등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들과 협업했다. 이선지의 데뷔 앨범 『The Swimmer』(2009)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벤 스트리트 (베이스), 마크 퍼버 (드럼), 랄프 알레시 (트럼펫)가 참여했으며, 강한 개성과 시각적인 이미지를 음악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예술대학, 동덕여대 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발표한 6장의 리더작이 모두 평단과 리스너의 주목을 받으며 2015년에는 4집 앨범 "국경의 밤"으로 2015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앨범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회화적 낭만과 서사적인 스토리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발표하는 음반마다 같은 스타일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며 다양한 주제를 음악으로 펼쳐왔다.

2018년에는 세월호의 아픔을 음악적으로 풀이한 6인조 chamber ensemble "song of April"과 과거?라벤드 "로로스" 리더이자 작곡가인 도재명과 클라브 앨범 "a true travel"을 발표하는 등 장르적 표현방법과 음악적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재즈비평가 김현준은 그녀의 음악에 대해서 "정답만을 강요하는 세상에 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한 피아니스트의 데뷔작이 던져졌다. 은근하고도 치명적인 매력, 그게 현재의 이선지다."라고 평을 하고 있다.

대중음악평론가 서정민감도 이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이선지의 새 음반을 들으면 최근 몇 년 동안의 시간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음악이 현실과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음악은 현실의 도큐멘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선지는 이번



음반에서 선명하고 아름다운 테마와 클래식한 연주를 연결해 자신의 음악을 더욱 우아하고 치밀한 작품집으로 완성했다"

피아노 곁에 현악이 확장할 때 이선지의 음악은 아름다움 안에서 팽팽 끊어오르며 뜨겁다. 그 뜨거운 고상하게 재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음표들을 그리고 지웠을까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작품, 온 정열과 고통까지 음악에 배어 온통 뒤흔 들어버리는 작품집이 여기 이렇게 왔다.

"재 음악은 회화적이거나 또 문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묘사에서 나오 이 느낌을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보아졌구나 라는 영감을 자주 받는 편이거든요. 거꾸로 재 음악을 듣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거나 어떤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회화적이거나 문학적인 재즈를 계속하고 싶어요.

Blues For Spring이라는 곡이 있는데 봄은 대개 찬란하고 아름답고 생동감 있고 그런 이미지이지만 거꾸로 그 안에 숨겨있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 이러한 것들을 같이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러한 이중적인 감정을 표현해보려고 한 이 곡이 트리오로도 가장 오래 연주해왔던 곡이고 자랑 잘 닦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집 앨범 『The Swimmer』로 데뷔한 이선지의 대표곡으로는 Song of April, 고요한 사건 (silent affair), 도재명 이선지 "이 노래가" 등이 있다.

2019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과 최우수 재즈앨범의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선지는 현재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가장 저렴하고, 빠른 전속계약 전문

<http://www.korea7942.com>

건물/토지/주택
분양/임대
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
맞춤형 투자전략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대한

등록번호 제46130-2016-00011호 주소 전남 여주시 여서동 7길 18 TEL 061)681-7477

동계훈련 하기 좋은 조건, 여수시로 오세요

여수로 훈련오는 선수 여러분 모두 아자! 화이팅!!



여수시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 물러장을 포함한 여러 운동 시설 등 동계훈련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여수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로 영하 언저리에서 많이 내려가지 않기에 조금이나마 덜 춥게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동계

훈련하기에 알맞은 첫 번째 이유이다.

진남롤러경기장, 진남체육관 등 여러 운동 시설이 잘 갖춰져있고 숙박 시설 또한 깔끔하고 편안하다는 점도 알맞은 이유이다.

여수는 다양한 수상 생물들을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해상

케이블카 등의 관광할 곳도 많아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수시에서도 많은 전지훈련팀에게 편안히 왔다 가도록 풍족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12월부터 2월의 말까지 여러 전지훈련팀의 동계훈

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뤄질 예정이다.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훈련한 전지훈련팀들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

여수로 훈련오는 선수 여러분 모두 아자! 화이팅!!

강성은 학생기자 응천중1년



제주생태계 탐방 견문록



1. 제주도 거문오름

새해에 보는 일출은 더 밝다고 하는데 제주도 친환경 생태계 탐방을 위해 가는 배에서 보는 일출이 매우 잘 보였다.

제주도에는 오름이 많은데 화산폭발 때문에 생긴 오름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주도에는 세계유네스코 자연유산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이 거문오름이다.

제주풍력발전소인 신창 풍력발전소 견학도 했다.

김성현어린이기자(관기초5년)

수거를 하는 법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제주 사람들은 동네에 쓰레기수거함인 클린하우스가 잘 되어 있어서 재활용봉투를 잘 쓰지 않는다고 했다.

황에서 어린이기자(관기초5년)

3. 울래길 외딴개 환경정화 활동

제주올래길 중 외딴개에 가서 환경정화활동을 했다. 쓰레기 줍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았다.

쓰레기가 주로 많이 있는 곳은 벤치나 정자가 있는 휴식 공간이었다.

특히 담배꽂이는 장초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버려져 있었다.

제주 가는 배위에서 수평선으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도 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문오름 자연유산도 봤다.

김시현어린이기자(관기초5년)

2. 곳자왓과 제주클린하우스

에코랜드 기차를 타고 여러 가지 환경을 모아 놓은 마을을 탐방했다. 곳자왓 숲속 여행이다. 특히 에코브릿지역은 넓은 들판이 아름답고 숲을 구경하기 좋았다.

제주클린하우스는 아주 깨끗했다. 쓰레기 분리

여수 꿈뜨락몰 새해맞이 떡국 무료 나눔 행사

중앙시장 주변 상인과 시민, 관광객 등 고객들에게 청년상인들이 떡국 제공

여수 꿈뜨락몰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객을 위한 떡국 100그릇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여수 꿈뜨락몰은 그동안 사랑해 주신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하자는 청년상인들의 마음을 담아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시장 주변 상인과 시민, 관광객 등 많은 고객들에게 청년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떡국을 제공했다.

고객들은 청년상인들에게 "고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장사 대박나길 바란다"는 훈훈한 새해 덕담을 전했다.

여수 꿈뜨락몰 청년상인들은 "올해 시작을 고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고객들이 흐뭇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나누는 여수 청년상인들이 되겠다"고 했다.

여수 꿈뜨락몰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의 청년상인 점포가



조성된 곳으로 2018년 7월 12일 개장하여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새로운 여수 관광문화 복합 쇼핑몰로 도약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의 장이자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수시는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준비 포함 총 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했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음식점, 카페 등 삼점 24개와 일자리 카페 2개소 등 총 29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빙준용시민기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밑반찬지원프로그램

제철채소들과 단백질의 왕계란으로 균형잡힌 식단이 되길



쌍봉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진)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밑반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용자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밑반찬지원은 제철채소들과 단백질의 왕 계란 1판을 지원하였다.

풍성함이 가득한 이번 밑반찬을

가지고 가는 활동지원사들의 발걸음이 매우 분주하고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지원사들의 수고에 참 감사하다.

이용자에게 보다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애쓰는 활동지원사들의 얼굴은 항상 미소로 가득하다.

권은희(쌍봉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팀)

여수시청 정원에 동백꽃 포토존



여수시가 시청 본청사에 마련한 포토존이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시는 시청 정원에 동백꽃(시화)과 갈매기(시조)를 형상화한 경관 조명을 설치해 13일부터 일련에 공개했다.

점등 시간은 일몰~저녁 11시며, 3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관조명을 최소화했고, 조형물을 세워 수목의 생육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이정훈시민기자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하반기 평가회



쌍봉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진) 장애인활동지원사업팀의 활동지원사 하반기평가회를 오프라인 박스에서 진행했다.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하반기 평가회는 김종진 관장님의 인사말씀과 올 한 해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팀에서 진행해온 사업, 쌍봉종합복지관 각 사업팀의 사업들을 영상물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하반기평가회는 올 한해 활동지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영화관이라는 평소보다는 특별한 장소를 선정하였다.

영화관람이 끝난 후 활동지원사님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며 화합을 다지고 올 해를 아쉬워하며 보내기 보다는 2020을 기대하며 맞이하자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진 관장은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변화없이 우리 이용자와 또한 지역주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시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신의 몫을 다해 근무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권은희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팀)

어린이환경지킴이들 여수 이순신도서관 탐방

지역의 역사와 미래 첨단 기술 등 여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담겨 있는 곳

여수 이순신 도서관은 지역의 역사와 미래 첨단 기술 등 여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는 곳이다.

지난 12월 27일 개관식 현장에서 개관 축하 이벤트 무대에 참여했던 사)ECO-ELUS21 어린이환경지킴이들이 여수 이순신도서관을 찾아 직접 탐방에 나섰다.

이순신도서관은 198억원이 투입된 전남 동부권 최대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다. 상상 창작소, 디지털 아쿠아리움, 승용차로 책을 찾고 반납할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스루', 장서 점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돼 있고 이순신 장군 관련 자료 1천여권 등 5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어린이환경지킴이들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즐거움이 있어 좋다. 최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호기심이

생긴다"라고 관심을 보였다.

김현아시민기자



전남대여수캠퍼스 지역특성 살려 첨단학과 신설 차별화된 선제적 대응



이 우 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부총장)

4차 산업혁명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직업 유형과 필요한 역량의 변화로 인해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향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고교졸업자가 급감중인 현황 속에 특성화 전략으로 대책 마련 방안을 추진 중인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이우범 부총장을 만났다.

이하 내용은 이우범 부총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전남대와 여수대 통폐합 출범한지 14년이 되었다. 여수캠퍼스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전략이 요구된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만의 특성과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 중이다. 둔덕, 국동, 삼동지역과 해양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

특수교육학부, 해양토목공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영양식품학과, 행정학과가 광주로 이전되고 입학정원이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여수캠퍼스가 독립적인 조직이 부족했고 학교의 의사결정에 보조역할 정도만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 번에 바로 변하는 것은 없다. 인구감소로 인해 고교졸업자의 수가 급감중이기에 지방대학 대다수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학년도부터 전남대여수캠퍼스



▲9월 20일 국동시민체육복합시설 준공식

에 첨단학과가 신설될 예정인데 어떤 과가 추진 중인가?

석유화학소재공학과가 신설되면 학생 수 40명이 증가될 전망이다. 이 과는 400여 명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9년 9월 개교한 여수산학융합캠퍼스의 발전을 가속화 하게 될 것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와 전남동부권 산업단지에서 핵심인력을 보급할 수 있는 석유화학 관련 첨단학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수산해양대학은 2019년부터 향후 10년간 200여억 규모의 'ICT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센터' 및 '스마트 수산양식 연구센터' 유치 및 인력양성을 수행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를 신설하고 매년 40명의 학생들이 입학할 전망이다.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는 기존 의공학과를 개편하여 정원 50명의 학부체제로 전환을 시도중이다.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령화된 지역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명을 적극 활용한 바이오헬스 및 맞춤형 헬스케어 등 헬스케어 융합기술 적용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국동캠퍼스에 건립을 추진중인 전남권 권역재활병원과 연계한 의공학 관련 전공 인재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지역민들이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학생 수 감소를 염려하고 있으나 이는 여수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지역특성을 살려 첨단학과를 신설하여 좋은 대학이라는 지역사회의 인식의 전환과 우수인재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타 대학과 차별화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의 한계 극복 및 양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애리조나 주립대학도 한 때는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다. 지금의 전남대 여수캠퍼스도 부총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학생 수도 증원해야하고 4차산업혁명도 준비해야하고 지역민들과의 의견수렴도 해야하는 등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제일 먼저 구성원들이 손발을 잘 맞춰야한다. 교수와 직원의 끊임없는 대화와 미래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구성원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먼저 했다. 구성원들이 부합하는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를 안정적으로 따라온다고 본다. 개혁과 변화는 리더 혼자의 몫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나가야 한다.

지역민들과의 소모전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통합 후 발생된 문제점만 드러내는 것 보다는 지금은 함께 힘을 합하여 전남대여수캠퍼스의 위상을 올리는 데 힘을 실어야한다. 학생수 급감, 4차 산업혁명, 지역의 위기 속에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남대여수캠퍼스를 지역민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인정해주길 바랄 수는 없다. 전남대여수캠퍼스는 최선을 다하여 현실을 극복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진 전남대 여수캠퍼스로 거듭날 것이다.

◆해양캠퍼스 새동백호 실습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새동백호'는 3천톤급, 전장 96.45m, 폭 15m, 선속 14노트 규모로 승무원 30명과 실습생 및 연구원 80명 등 모두 110명이 승선할 수 있다.

새동백호의 취항으로 수산·해양 특성화를 선도하는 전남대학교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강의 및 실습을 함께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통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선박과 ICT와 4차산업혁명을 결합시켜서 인재를 양성하여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임한지 7개월로 들어간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가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어렵다. 여수캠퍼스가 좋은 대학이라는 지역사회의 인식 부재가 크다. 여수지역 고교생들의 지원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남지역의 목표대, 순천대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취업률이 낮은 것도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본다. 고졸자들에게는 지역인재 취업 할당제가 있지만 대졸자에게는 그런 특혜가 없다. 공기업은 지역인재 20%할당제가 있는데 아직 사기업은 할당제가 없다.

전남대여수캠퍼스와 여수시, 새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서로 MOU를 체결하고 우리지역 정치인들이 사기업도 대졸자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해줄길 바란다.

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여수국가산업단지 취직을 하고 가정은 무관다면 인구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지방대학이 발전해야하는 이유와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은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여 그 기능을 담당해야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도 감당해야한다. 지방대학에서 이 기능을 감당하는 몫은 지방 공공립 대학이다.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로 감당해야하는 몫이 있고 지역고등학교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예측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지역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할당제와 지방대 인재를 우대 채용하는 대기업을 위한 혜택을 주는 것도 국가적으로도 지방행정부로서는 고민하고 추진해야한다.

◆전남대여수캠퍼스는 지역민들과 어떤 소통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역민들에게 전남대여수캠퍼스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진다. 지방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방대학의 육성이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다. 지방대학이 선호되는 나라가 되어야 학생들도 입시 지옥에서 해방되고,

학부모들도 사교육부담에서 해방될 것이다. 물론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우리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지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하는데 우리대학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으니 소모적인 논쟁이 생긴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에도 적극 투자하고 시민들이 캠퍼스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수캠퍼스에 대변인을 두고 우리대학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지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받는 여수캠퍼스로 만들겠다.

최형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11월 19일 공학대학-수산해양대학 공동심포지엄



▲12월 27일 여천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9월 24일 전남대여수신학융합지구 개교 및 준공식



▲12월 4일 ROTC 학군단 출정식



▲10월 8일 미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유)금오관광 해외여행사

Happy Partner Kumotour



전남 여수시 여서동7길 18, 1층
대표전화 061-681-7471
렌터카사업부 061-681-7472
E-mail bushanarc@hanmail.net

여행 사업부

- 기업출퇴근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공항수송전문

렌터카 사업부

- 보험대차
- 장기대차
- 일반대차
- 기사대행

우동식의 <시 읽어 주는 남자>

새해 소망문



우동식

해가 솟는다 등등해가 솟는다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해가 솟는다

2020년 경자년 흰 쥐의 해
희망찬 새해가 뜨겁게 뜨겁게 솟아오른다

목은 마음 목은생각, 목은행동
어둠은 걷어내어 저 가막 만 앞 바다에 던지우고
새 마음, 새 정신, 새 행동이 새롭게 솟아오른다

새해 새날이 눈부신 빛으로 찾아와
충만한 가슴으로 파고드는 아이 이 마음!

새해에는 너도 나도 '땀' 꾸게 하소서
절망은 가라앉고 소망이 솟아올라
그늘진 곳곳에 두루두루 비추나니
저 마다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시작은 미약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하소서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 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섬기고 베풀고 돌보며 나누는 삶이 깊어져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자들이 위로함을 받게 하소서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따뜻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더욱 '행복' 하게 하소서
행복이 최고 최선의 답이요 길이니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축복의 길이게 하소서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학교에도
군래에도 직장에도 각종 시민 사회단체에도
그리고 사랑하는 여수일보 독자들에게도
행복이 너울너울 춤추게 하소서

새해에는 더욱 '풍성' 하고 '유택' 하게 하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며
농사짓고 씨 부리는 일이나
바다에서 고기 잡고 양식하며 수산업 하는 일이나
공장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이나
서비스업계가 모두 풍성한 삶과 호황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새해에는 관계가 '회복' 되고 '하나' 되게 하소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이념간의 갈등이 좁혀지며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부터 자연과 환경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남북통일을 이루어
평화롭고 정의로운 선진조국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만사가 다 '행통' 하게 하소서
빛이 비추며 어둠이 사라지듯
뿌리고 심는 자 마다 100배의 결실을 갖게 하소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각종 재해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가는 길마다 하는 일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 새해에는 새해에는 나의 해, 너의 해
우리 모두의 해가 되게 하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해를 감사 드리오나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장흥에서 만나는 하늘과 별과 자연의 소리'

(사)ECO-PLUS21의 정회원 자녀들과 여수일보사 청소년기자단이 참여

재능기부봉사단체 (사)ECO-PLUS21(회장 김영주)이 청소년환경지킴이와 함께 정남진 천문과학관을 탐방하여 하늘과 별을 보며 자연을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장흥에서 만나는 하늘과 별과 자연의 소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30명이 함께했고 (사)ECO-PLUS21의 정회원 자녀들과 여수일보사 청소년기자단이 참여했다. 장흥천문과학관은 전남 최초의 천문과학관으로 청소년에게는 우주와 교감하며 꿈과 희망을 주고 일반인에게는 천체와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시켜준다. 이번 행사에서 30명의 청소년환경지킴이들은 7m의 원형 돔의 주

관측실과 슬라이딩 돔의 보조관측실에는 반사 망원경과 굴절 망원경으로 성운, 성단 등의 천체를 관측했다.

천체투영실에서 가상의 별자리를 보고시뮬레이션으로 생동감 있는 별나라 여행을 했다.

야외 관측실에서는 겨울철 별자리 백조자리와 카시오페아, 삼태성 등을 관찰했다.

(사)ECO-PLUS21과 함께 '장흥에서 만나는 하늘과 별과 자연의 소리'에 참여한 정상미(6년)학생은 "그리신화에 나오는 별자리를 직접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다음 행사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김영주 회장은 "백조의 눈"이라



고 하는 리겔과 베지우스를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어 흥미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흐뭇하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느끼는 행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최현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세상~'

'함께하는 세상'이 5년 동안 지속적인 봉사 함께하며 사회환원 정신 실천



진달래마을요양시설(원장, 신미경) 어르신과 봉사자들을 위한 '함께하는 세상'이 5년 동안 (유)금오관광이 함께 했다.

이 행사는 요양원 어르신과 봉사자들 50여명이 함께 하여 해리스가든 정원에서 함께 사진도 찍고 노래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한 식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신미경 원장은 "요양시설 안에서만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이번 나들이 행사와 점심식사를 후원해준 금호플리켄과 금오관광에 고맙다. 어르신들이 계절을 어찌나 맛있게 잘 드시는지 무한리필을 해주신 해리스가든 사장님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유)금오관광은 (유)금호플리켄 통근버스 협회사로 두 회사는 5년

동안 지속적인 봉사를 함께하며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사회환원'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유)금호플리켄이 버시원을 하고 (유)금오관광이 식사지원을 했다. 한편 이 두 회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들이뿐만 아니라 환경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최현란기자. 사진 안선희사민기자

송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이야기>-11

세계에서 인정하는 섬세한 손기술, 우리나라 미용 기술

우리나라 미용인들의 실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섬세한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미용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된 2019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위크숍(한국 미용 기능장 협회 개최)에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고 작년 9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9 OMC 헤어월드'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수상하며 월드 챔피언인 4연패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10년 전 미국인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있는 고객은 1년에 한 번씩 친정에 오면 꼭 미용실에 들린다. 미국에서는 고비용으로 머리하는게 쉽지 않아 한번은 헤어모



송정현미용장 (미평,마르꼬파리)

델을 하면 무료로 탈색을 해준다고 해서 했다가 머리카락이 망가져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해주기도 한다.

남편이 장기간 출장이 많아 미국 여러 지역에서 머리를 해보았지만, 우리나라 미용실 만한

데가 없어서 몇 번 실패 후론 아예 한 생각을 않고 한국 들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적이 있을만큼 우리나라 미용기술이 앞서가는 실력이 있음에 분명하다.

목표, 순천, 여수, 강진 전남 여러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종일 일을 끝내고 광주까지 교육을 받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열정을 보여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며 앞으로 각광받아야할 업종은 기능, 기술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광주 산업인력공단 팀장님 말씀에 미용을 하고 있음에 감사했다.

기능과 기술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을 것이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미용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더 인정받고 가치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KU 보성자동차 Bosung used car firm

대표 문경일 010-9450-7529



(주)모모렌터카 서교지점 MOMO Car Rental Co., Ltd. 보성테크 보성테크 B Bosung Tech 보성테크 S 서교주차장 Seo Gyo Parking lot BMW Mercedes-Benz Audi Volkswagen MANCO

본점 전남 여수시 서교1길 6 (서교동 658) TEL: 061)686-7301 FAX: 061)686-7303

봉산지점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2길 1 TEL: 061) 686-7302

인터넷 www.bsacar.kr E-mail moonkyungil@naver.com

계좌번호 농협 302-9450-7529-41 (예금주: 문경일)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여수일보 특집 질문 5탄에 참여를 원하시는 후보자는 연락바랍니다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한 2020총선 출마공약은 무엇인가??

여수산단소재 대기업 지역대학 인재 채용 할당제 실시 추진

주승용 국회의원
(답변서도착: 1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은 고교 서열화와 함께 철저한 학벌위주의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교는 소위 말하는 SKY(서울대,고대,연대)에 몇 명을 입학 시켰는가? 명문고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학 역시 대기업 및 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얼마나 많은 졸업생이 취업했는가에 따라 명문대학으로 인정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존립자체를 걱정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대학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1. 전남대여수캠퍼스를 수산 및 석유화학 산단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단과대학을 신설하여,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 지역소재 대학 출신을 여수 산단소재 대기업이 일정비율 이상 의무 고용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여수시,여수산단,지역소재 대학이 협약 체결)
3.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
대학도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교육 역할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방안 제시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해야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다.

21대 국회, 지방대 특수성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 변경하도록 노력

최도자 국회의원
(답변서 제출 1월 20일)



지방대학은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역량강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지원 사업은 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원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라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이 평가방식에 지방대학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수백억 원을 지원받은 대학들이 구조조정대학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에 지역구를 둔 여러 의원들을 규합해서 교육부의 대학 지원을 위한 평가방식에 지방대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겠다.

여수지역대학 출신 학생우선 채용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할 계획

이종우 국회의원
(답변서도착: 1월 15일)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산학 체계를 연계해 취업률을 높인다면 지방대학의 역량은 강화될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부족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취업입니다. 현재 여수에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한영대학교 두 곳인데, 위 두 대학의 취업률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여수 지역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과 연계한 산학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수 지역 대학 출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 또한 학생들에게 실력과 재능을 갖춘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맞춤형 특성화학과 조취업형 계약학과 개설,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 필요

김유화 더불어민주당 김지구 출마예정자
(답변서도착: 1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부국 실현을 위해 2019년도에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해양수산 신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도, 인력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였으며,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자산, 유류 항만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지역의 주요 신산업 육성에 활용하고, 국가 해양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현재 3.1%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R&D) 중 해양수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시장 진출 촉진 및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고교 특성화 교육 및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한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 지역의 고교(해양과학고 등) 및 지역소재 대학교에 ①해양바이오산업, ②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③ LNG, 수소, 전기 등 친환경선박 연관산업, ④첨단해양장비 산업, ⑤해양에너지 산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발맞춰 관련 연구시설과 학과 유지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또한 국가산단에 석유화학 완성품 제조 공단 및 관련 연구기관의 유지와 더불어 맞춤형 특성화학과와 조취업형 계약학과 개설, 지역 인재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산업 연계 학과유치로 지역대학 활성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 김지구 출마예정자
(답변서도착: 1월 15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통합 15년 동안 10학과 폐지, 500여명 정원 감축이라는 현실적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학경쟁을 총괄하는 본부는 광주에 있어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 간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고 예산 투자와 주요 학과 재배치, 학생 정원 수 재조정, 학부 편제 학과의 이격 등이 갈등의 핵심이 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수캠퍼스에 대한 균형적이고 점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 재입시 통합과정에서 지역사회에 한 약속이행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위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역사회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의 활성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의 인재양성과 도시발전의 기여하며 공생해야 한다. 여수는 수산과 해양, 석유화학산단, 관광을 중심으로 한 도시이다. 미래산업에 대한 학과 유지는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의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해답은 전문학사를 양성하는 한영대학이 수년전부터 산단과 의료관련학과를 개설하여 지역사회 산업 및 도시발전 비전에 궤를 맞춰 서서히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4차 산업인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과,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을 총칭하는 5차 산업관련 학과의 유치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역대학으로써 면모를 갖추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다.

지역과 협의 통해 이곳에서만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야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 을지구 출마예정자
(답변서도착: 1월 21일)



대학은 지역혁신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른 대학과 차별화 된 그래서 이곳에서만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한 예로 수산관련 학과를 포함한 해양관광전문학과나 석유화학계열 학과의 강화는 지역이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점이다. 특히 정부도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108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심층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함께 지역혁신의 주체로 자리하라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지역과 대학 간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공간이 필요하다.

전남대여수캠퍼스를 특성화, 여수국가산단과 미래수산업 흐름에 맞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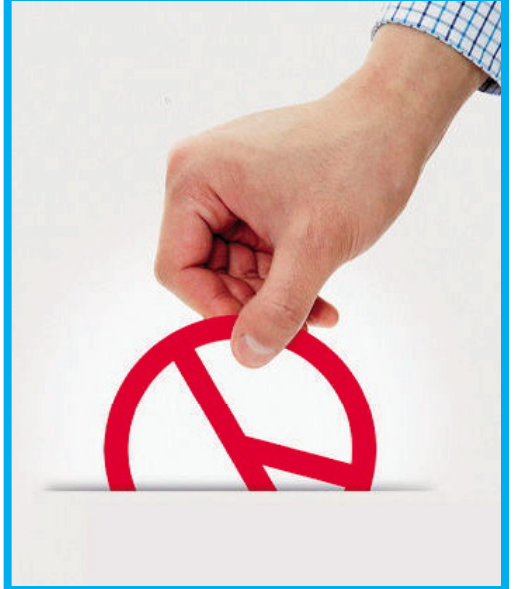
강희수 더불어민주당 여수 김지구 출마예정자
(답변서도착: 1월 16일)



2006년 3월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에 통합된 것은 지역사회로 보면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여수대학교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면, 아마 "수산, 관광, 해양"에 특성화된 대학으로 우리나라 미래나,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적이고,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구감소와 증원율하락으로 대학구조조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수대를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특성화해야 합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현행 수산해양대학과 공학대학 등의 학부를 여수국가산단과 미래 수산업 흐름에 맞춰 더욱 세분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2호 공약> 민간로켓발사장 건설 및 우주산업 육성, <6호 공약> AR, VR 등 4차 산업시대 육성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위과정이든 비학위 과정이든 미래산업과 관련한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대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2020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 선 거 일 : 2020. 4. 15. (수)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동시 실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24.1.6일 이전 출생)
- 임기기간 : 4년 (2020.5.30. ~ 2024. 5. 29.)
-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관련정보 : 선거법규포털



A TWOSOME PLACE
...for tasty treats & double delights...

투썸플레이스
여수여서점
...for tasty treats & double delights...

coffee & dessert

전남 여수시 여서동1길 38
Tel. 061)652-2200

www.twosome.co.kr